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사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어 고귀한 정신을 실천해야”

5·18광주민중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꼭 이뤄야 할 과제

늘 오월이면 광주는 아픔이다. 아직도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된 세월이 45년이 되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아 군부 독재세력은 전남대 정문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진압했고, 자연스럽게 시민 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

광주는 며칠간 민주와 정의와 자유의 도시가 되었지만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우리들의 분노는 꽃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산화하고 감옥에 갇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계엄의 잔재와 역사 왜곡, 친일파와 극우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망령된



자들이 우리의 민주와 정의와 자유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민중항쟁은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

시 방심하고 한 눈을 팔면 저들은 다시 우리의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유린하고 그들이 누렸던 과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교의 민주길을 걸으며 박관현과 윤상원 그리고

윤한봉과 함께 꽃이 된 5·18 영령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희생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합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정의가 넘실대는 사회를 향해,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어 글로벌 대학으로 준비를 바라는 고귀한 정신을 실천해 나아갑시다.

5·18광주민중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말로만 하는 구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아침 5·18국립묘지를 방문 헌화하고 한 분 한 분 교수님들과 동문들의 묘역을 찾아 추모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민주영령을 기리면서 그동안 아픔을 담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구속자 모든 분들께 48만 동문의 마음을 담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류혜경

허정(의학·70, 에덴병원장) 전 총동창회장 광주시민대상 수상

‘20년간 장학금 11억 기탁’...지역 문화 발전 기여 등 공로



본회 허정(의학·70, 32대 총동창회장, 에덴병원장) 상임고문이 광주시민대상에 선

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인재 육성을 위해 20년 동안 장학금 11억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허정 에덴병원장을 제38회 시민대상 수상자로 시상한다고 5월 14일 밝혔다. 시상식은 5월 24일 제60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리며 허정 원장에게는 시민대상 상패와 예우공간인 ‘시민대상 홍보공간’에 현액된다.

허정 원장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재임때 적십자회비 등 1억 5,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 전국 128호에 이름을 올렸다. 또 광주전남혈액원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 기부금품 모금과 구호활동에 앞장섰다.

허정 원장은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전남대학교 발전기금 4억2000만원 등 20년간 약 11억원을 기부해 2022년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또 대동문화재단 제4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대동문화를 발간했으며 문화재지킴이 활동, 국제 문화교류 사업 등 다

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했다.

백범문화재단 이사장 시절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유업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초대 부회장,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광주안전문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광주전남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허정 원장이 운영하는 에덴 병원은 자연분만문화를 선도해 한국여성민우회의 '아름다운 병원'에 선정됐으며 유니세

프 한국위원회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했다.

광주시민 대상은 1987년부터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분야에서 160명의 시민과 9개 단체에게 시민대상과 명예의 전당을 시상했다.

하지만 대상자 발굴 어려움과 공적 격차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올해부터는 시민대상과 명예의전당을 하나로 통합해 공적이 뚜렷한 1명에게 ‘광주시민대상’을 포상하기로 했다.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터”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 정기총회가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4월 17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박숙령 회장을 비롯한 고문 및 임원진, 류혜경 총동창회장, 최희동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 김영필 사무처장, 조정영 재경 간호대학 동창회장, 안영희·김순례 고문, 유성희 간호대학장과 간호대학 교수진, 그리고 동문 등 총 172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1부 정기총회, 2부 기념행사, 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1부 정기총회는 박숙령



회장의 주관 아래 진행되었으며, 2024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에 이어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2부 기념행사는 박숙령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박숙령 회장은 “꽃이 만개하고 초록

이 생생한 좋은 계절 4월에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환을 보내주신 정신 전남대학교 병원장, 민정준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장, 찬조금을 보내주신 박진숙 광주은행 지점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숙령 회장은 “우리 동창회는 모교 발전을 지원하고, 선후배 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겠다”라며 동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는 1951년에 창립되어, 2025년 현재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총동문수는 5,320명에 달한다.

장학회의 의결을 통해 봉사 와 헌신의 정신을 실천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7명의 학생(권유리, 김예은, 김도영, 박철연, 박세진, 이은주, 김지웅)에

게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수여되었고, 기부에는 김순례, 박숙령, 유성희, 최영자, 배수정, 김희선, 최옥자 동문이 함께했다.

또한 박현영, 조인영, 정경희 간호대 교수에게는 학생 학술연구비가 전달되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의 축사와 조정영 재경 동창회장의 격려사, 유성희 간호대학장의 모교 현황 보고가 이어지며 2부가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3부 저녁 만찬에서는 전남대병원 밴드 hydration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지며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선·후배 동문들은 정을 나누며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보냈다.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21주년 맞아 글로벌 성과·미래 비전 제시

‘내일의 의학을 오늘 만나는 병원’을 슬로건으로 기념식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4월 24일 오전 11시 미래의료혁신센터 1층 대강당에서 개원 21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내일의 의학을 오늘 만나는 병원’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근배 전남대병원 이사장 겸 전남대학교 총장,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직원, 각계 내외빈이 참석했다.

민정준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21년간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암 치료 특화병원으로서 힘 없이 달려왔다”며 “암은 서울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는 편견을 깨고 대한민국 대표 암 전문병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 최고 암 병원’ 5년 연속 선정과 ‘2025년 대한민국 병원 평가’에서 비수도권 최고 순위를 기록한 성과를 언급하며 글로벌 위상을 과시했다.

이근배 이사장은 축사에서 “화순전남대병원은 최첨단 의료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국내 최고 암 특화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며 미래 의료의 선도자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정밀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등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 최고, 세계 100대 병원 진입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병원은 이날 ‘아시아 암 진료와 연구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항암센터’ 신축, 입자치료기 및 알파입자 가속기 같은 첨단 의료 장비 도입을 추진하며 아시아 최고 암 병원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2009년 광주전남 최초 로봇수술 도입을 시작으로 최첨단 의료기술 선



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호남 유일 ‘다빈치 SP’를 본격 시행하며 고난도 수술 역량을 강화했고, 누적 로봇수술 2,000례를 돌파했다. 대장암, 위암, 폐암 등 주요 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과 면역·백신 치료제 개발 연구로 국내외에서 암 진료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민정준 병원장은 “지난 2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100대 암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글로벌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미래 의료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신 곁에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제37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는 모교와 동문, 후배를 잇는 가교가 되어 모교 발전을 도모하고 후배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동문들의 자랑이 되는 총동창회, 동문 여러분들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 소중한 동창회비 납부로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에 함께해 주세요.
- ☎ 동문 참여(기고·수상·승진·출판 소식 등) 환영합니다.
- ☎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 E-mail :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전라남도 동문 공직자 간담회 개최

지역 사회 발전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할 동문 역할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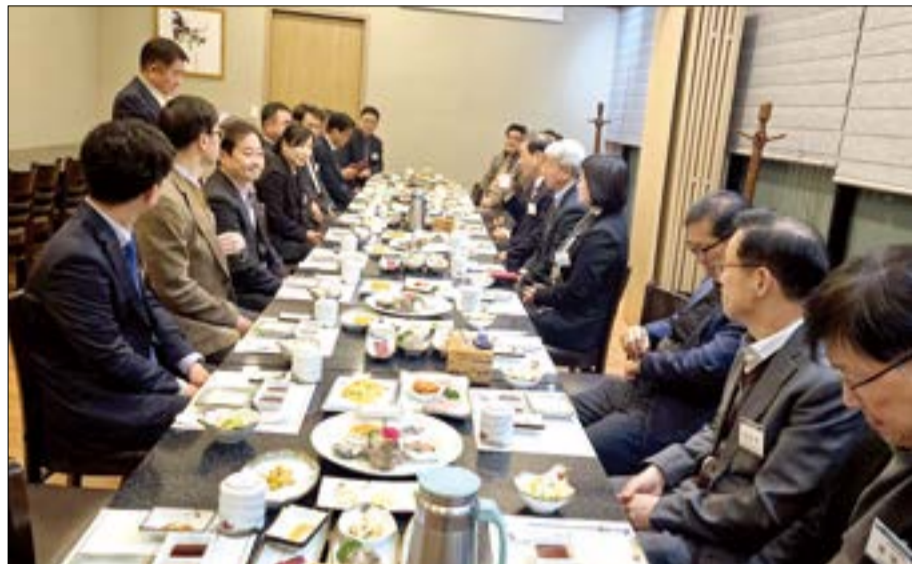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는 '전라남도 동문 공직자 간담회'를 4월 14일 전남 무안에서 개최했다.

'전라남도 동문 공직자 간담회'는 전남에서 공직자로 활약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교 발전을 위한 동문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본회 류혜경 회장,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윤영주 상임부회장, 박인철 부이사장, 김영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모교에서는 김용민 여수부총장, 조진형 대외협력처장, 박형규

대외협력부처장, 김대익 여수교학본부장, 강지훈 여수기획연구본부장, 김상훈 여수산학연구부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청 동문 및 기관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지역 사회 리더로 활동하면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남 공직자 동문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이러한 동문 공직자 모임들이 점점 확대되어 동문들이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봉언론인, 모교 발전 위해 '한자리에'

본회 동문 언론인 간담회 개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는 '용봉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우리 대학 출신 언론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4일 뜰안채 식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윤영주 상임부회장, 윤경철 상임부회장, 오경미 상임부회장, 정승기 상임부회장, 민상준 부회장, 김영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모교에서는 김양현 교학부총장, 주정민 대학원장, 정난희 학생처장, 박형규 대외협력부처장, 김수람 대외협력과 홍보팀장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용봉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동문들 가운데 광남일보 편집국장 최현수(정치외교·89), 광주일보 국장 박진현(신문방송·83), 논설실장 장필수(영어영문·86), 남도일보 주필 오치남(신문방송·81), 편집국장 김경태(법학·82), 지역사회부장 박형주(신문방송·97), 무등일보 기자 이



삼섭(신문방송·10), 전남일보 사업본부장 김기중(신문방송·86), 부장 최동환(신문방송·87), 광주MBC 전 보도국장 이계상(법학·93), KBC광주방송 부장 백지훈(신문방송·90), 광주CBS 대표 권신오(신문방송·85), 보도제작국장 최창민(국어국문·01) 동문 등 총 30여 명이 참

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는 모교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교와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용봉언론인들의 고견을 자주 듣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지정기간 [2024.01.01 - 2026.12.31]

명지성모병원

뇌경색

뇌출혈

치매

종합병원 | 24시간 응급실 운영

문의 1899-1475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6

2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 50m

본회, '전국무등산무돌길완주대회' 공동 주최

2,000명 참가해 성황...무돌길 비경 만끽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는 '제4회 전국무등산무돌길완주대회'가 5월 10일 무등산무돌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와 (사)무등산무돌길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광주 동구·북구, 담양군·화순군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광주·화순·담양 등 무등산 자락 51.8km 구간에서 진행됐다.

본회에서는 최희동 수석상임 부회장, 김영필 사무처장이 참



가한 이번 대회는 완주(51.8km)와 하프, 시민 걷기(5.18km) 등 다양한 코스로 나뉘 열렸는데 1800여명의 참가자와 3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다.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무등산 자락에 펼쳐진 무돌길의 비경과 문화를 만끽하며 저마다 목표한 구간을 완주했다. 특히 참가자 중 142명이 51.8km구

간을 8시간 안에 주파하고 400여 명이 완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4년 연속 참가자 30명에게는 최다 참가상이 주어졌으며 최연소(13세), 최고령(79세), 외국인 참가자상 등이 수여됐다.

김인주 무등산무돌길협회의회 상임의장은 "성공적인 대회 성과를 토대로 무돌길이 무등산의 전통문화는 물론 지구촌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명품 길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

장은 축사를 통해 "무등산을 에워싸고 있는 무돌길은 5·18정신과 무등정신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무돌길은 '무등산 자락의 천년 문화를 한 바퀴 돌아보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로 48개 마을과 마을을 잇는 500년 이상 된 옛길을 1910년 작성된 지도를 토대로 발굴·복원한 무등산 둘레길이다. 광주역을 출발해 전남대, 각화저수지, 담양·화순, 광주천·푸른길을 지나 광주역으로 순환하는 16개 길로 구성돼 있다.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임직원들 1억 3천만원 기부...2200만원 상당 나눔 실천

광주은행은 최근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받은 답례품을 다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

해 오고 있으며, 지난 3월 한 달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 약 1억 3,000만원을 광주·전남 지자체에 기부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부 참여를 통해 받은 2,2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다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 계층에게 따뜻한 온정

의 손길을 더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광주은행이 지역에 대한 진심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

마랑

농토

수산물시장

개장

기간 : 2025. 4. 12. ~ 10. 25.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 강진군 마랑항 중방파제 일원(마랑면 미항로 152)

싱그러운 봄바람과 함께, 바다내음이 가득한 마랑농토수산물시장으로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마랑농토수산물시장 개장 행사

- 일시 : 2025년 4월 12일(토) 오후 2시
(축하 공연 : 미스터트롯2 TOP1 안성훈, 미스트롯3 top4 미스김 외 5명)



안성훈



미스김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이임 장영태 회장, 취임 이승행 회장



왼쪽 이임 장영태 회장(분회 무등지구 회장), 취임 이승행 회장(분회 상임부회장)



베네치아 지산 본점에서 열린 '2025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정치외교학과 동창회는 '2025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4월 25일 베네치아 지산 본점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박하일 고문(전)전남대정치외교학과 대학원장, 최영관 명예회장(광주 YMCA(사)오방기념사업회 이사장, 전)전남대 교수평의회 의장, 한영 명예회

장(재)광주어머니장학회 이사장, 박찬문 명예회장(국민건설(주) 회장), 조정관 정치외교학과 학과장 및 교수, 대학원생과 학생회장, 재학생 등 6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본회에서는 정주영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이임한 장영태 회장(분회 무등지구 회장,월남전 참전자회 복구지회 회장·전)

광주광역시의원)은 "우리 동창회가 후배들과 모교를 지원하여 정치외교학과가 더욱 발전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취임한 이승행 회장(분회 상임부회장, 펜캘러리아 회장)은 "앞으로도 모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과로 성장해 나가면

서 선배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창회는 대학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모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전남대병원, 공공기관 고객만족 '최고'



전남대학교병원은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공공기관 182개를 대상으로 총 13만 1,023개 표본을 조사했다.

대상사업 선정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주관업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한국표준협회, 실사업체는 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남대병원은 우수, 보

통, 미흡 중 가장 높은 '우수' 단계로 평가받았다. 이는 14개 국립대병원 등을 포함한 기타공공기관 110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등급이다.

전남대병원은 진료·교육·연구사업 부문의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전반적 고객만족 △성과 △불일치 항목 등 5개 항목에서 모두 예년보다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진료사업 중 '외래 분야'에서 환자들의 만족도 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입원 분야' 역시 지난해보다 점수가 상승하는 등 전남대병원은 87.2점으로 종합병원 평균 대비 2.5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제7대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장 임명, 김명선(의학·89) 동문

“소통·협력·리더십으로 병원 발전 이끌겠다”

‘관절 공공진료센터’ 이전 등 대비...“환자·직원 목소리에 귀 기울일 터”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제7대 병원장에 김명선(의학·89,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7년 4월12일까지 2년이다.

김명선 신임 병원장은 “빛고을병원의 대외적 발전과 함께 환자와 직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내부적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중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명선 신임 병원장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전남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의료 발전과 후학 양성에 기여해 왔다.

김 병원장은 이후 전남대병원 교수로 부임한 후 스위스 취리히 대학(Zurich University), 미국 워싱턴 대학(Washington University),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 등으로 견주관절 분야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후 김 병원장은 어깨관절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역량과 활발한 국제 학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 병원장은 ▲대한견주관절학회 평의원, 학술위원, 편집위원, 중개연구위원 ▲대한골절학회 감사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이사 ▲대한수부외과학회 이사 ▲대한운동계절기세포재생학회 학술위원은 물론, 해외 학회활동으로 ▲미국견주관절학회 정회원 ▲미국수부의

과학회 정회원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학회 정회원 등을 했다.

특히 97편의 논문과 4개의 특허등록, 5편의 저서를 펴냈으며 ▲전남대학교병원 의학연구 학술상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장려상 ▲대한견주관절학회 청강의학상 우수상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학술상 수상 등 정형외과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기여했다.

전남대병원 뉴 스마트병원 건립 박차 기재부 예타 통과

새병원 완공되면 최첨단 병원의 면모 갖출 터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 병원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형병원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

이번 새병원 사업의 예타 통과는 전남대병원이 새병원 건립을 공식 선언한 지난 2021년 새병원건립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4년 만이며, 지난 2022년 1차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아픔을 겪은 이후 2년 4개월 만에 일궈낸 성과다.

새병원은 총 사업비 9629억원을 들여 22만㎡(6만7400평) 부지에 1070병상 규모를 갖추게 되며, 설계 사업은 빠르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2단계로 나뉜 건립 계획 가운데 1단계는 오는 2030년까지 전남대의 학동캠퍼스와 전남대간호대 부지에 900병상 규모로 신축해 주요 진



료기능과 수술실·권역응급센터 등 병원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할 계획이다. 2단계는 오는 2034년까지 기존의 4개 건물(1·2·3·5동) 및 제1주차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170개 병상 및 교육·연구시설, 첨단의료사업화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병원의 필요성을 제기해오다 지난 2021년 공식적으로 추진방침을 밝혔다. 노후한 병원의 물리·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병원 건립을 근

본적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의료자원 격차 그리고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새병원 요구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게 됐다.

새병원이 완공되면 전남대병원은 미래 병원의 기본 모델을 갖추면서 필수의료 역량 강화, AI-바이오 융합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심혈관·뇌졸중·호흡기·응급외상·장기이식 5대 분야를 집중 육성시키는 최첨단 병원의 면모를 구축하게 된다.

전남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성료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4월 24일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관한 ‘2025년 광주·전남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 준비 청년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인재 간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이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한국전력

공사 등 3개 기관) ▲채용상담관(한국농어촌공사 등 13개 이전공공기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9개 시·도산하 출연·출자기관, 광주은행 등 7개 참여기업) ▲취업컨설팅 및 체험관(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4개 기관)등이 운영되어, 참여자들에게 생생한 현장 채용정보를 제공했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청년들이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대학원, 5단계 BK21사업 선제적 대비 '학사제도 개편' 설명회

CNU-BK 지원확대...융·복합학과 적극 지원

전남대학교 대학원(원장 주정민)은 4월 17일 5단계 BK21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32개 학과에서 60여 명이 참석해, 5단계 BK21 사업에 대한 대비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BK21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다가올 5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 신청을 희망하는 우수 학과를 대상으로 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CNU-BK 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과 간 통

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융·복합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연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전남대 대학원 측은 “올해 CNU-BK 지원사업 수혜 학과(전공)를 기존 6개에서 12개

까지 확대하고, 융·복합학과 신설 학과도 3개 내외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5단계 BK21 사업의 미래인재 및 혁신인재 교육연구단 구성을 위한 학사구조 개편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대학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대학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

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5단계 BK21 사업에 참여 가능성이 높은 우수 교육연구단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대 '2025 독서클럽' 모집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2025 독서클럽'을 5월 25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와 광주·전남 시민이 함께하는 한 책 읽기 운동인 「광주·전남이 읽고 토크하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독서클럽은 전남대 구성원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독서클럽은 4~6명이 한 팀을 이뤄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4권 이상의 책을 읽고 최소 6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실시하는 것이 운영 규칙이다.

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 독서클럽에 대한 총장상 및 포상금도 주어진다.

독서클럽 선정 시에는 활동 기간 동안 '2025 올해의 한 책' 무료 배부, 글쓰기 특강, 문학기행 참가비 지원, 도서 대출 권수 확대, 캠퍼스 야외 토론 지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대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대 전신 학교 독립운동가 100여명 서훈 추서

광주농업·목포상업·여수수산학교, “단일학교 최대 규모”

정부가 서훈을 추서한 전남대학교 전신(前身) 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단 김재기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광주농업학교·목포상업학교·여수수산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100여명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애족장 등에 추서됐다.



김재기 교수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3·1 만세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1940년대 학생독립운동 단체 결성 등을 한 활동가들을 조사했다. 광주농업학교는 1919년 3·1 만세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최정기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등 49명이 서훈에 추서됐다.

1920년에 설립된 여수수산학교 출신 서훈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오우홍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등 33명이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도 학교인 목포상업학교 서훈 추서자는 박종식 선생(건국

포장) 등 16명이다. 전남대 교수로 재직했던 의과대 조규찬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문리과 대학 이을호 선생(건국포장) 등도 서훈이 추서됐다.

연구팀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에 등록된 서훈에 추서된 인사들을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투옥이나 징계로 학교를 떠난 미서훈자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할 경우 15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단일 학교 규모로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서훈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방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립에 기여한 전남대 전신 학교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고증하고 선양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20년에 설립된 여수수산학교 출신 서훈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오우홍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등 33명이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도 학교인 목포상업학교 서훈 추서자는 박종식 선생(건국

전남대, 고용노동부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선정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고용노동부의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 대학으로 선정됐다.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 준비생과 니트(NEET) 등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 고취, 일 경험 제공, 경력 설계 지원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진로 및 취업 상담 △생활 적응·경제·창업·심리 등 분야의 통합 경력 설계 전문 상담 연계 △취업 역량 진단 △직무 특화 일 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업 프로그램 △입사지원서 및 면접 컨설팅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으로 구성된다.

전남대는 이번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선정으로 8천 4백만원을 지원받아 연간 300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취업 서비스를 파악해, 개인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난희 전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대학이 보유한 진로·취업 관련 전문 자원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졸업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례동문회와 순천동문회, 우의 다지는 친선 모임 열어

본회 구례지부 동문회(회장 최춘태)는 4월 21일 구례 '자매 칼국수' 식당에서 순천지부 동문회(회장 김종춘) 임원진과 합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친선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6월에 계획하고 있는 지리산 피아골 계곡 합동 야유회 친선 모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또 각 지부 동문 간의 정보도 공유하면서 동문 상호 간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합동 모임에는 구례지부 동창회에서 김창승 제3대 회장, 최춘태 회장, 이창호 수석 부회장, 신승구 부회장, 박종현 집행위원장, 윤병술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순천지부에

서는 김종춘 회장, 허현복 홍보국장, 권해임 사무국장 등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다.

친선 모임에 참석한 동문 회원들은 “지난해 합동모임을 가진 이후 양 지부 임원진이 연말 송년회에 번갈아 참석하여 전남 동부지역에서 전남대 동문 간의 친선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용봉 동문들이 활발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힘을 모으는 행사를 진

행하자”고 의견을 나누었다.

최춘태 구례지부 회장과 김종춘 순천지부 회장은 “향후에도 친선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호흡하며 동문 발전을 위해 힘쓰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 전남대 동문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남대의 동문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동창산악회 5월 정기산행

4·19 민주묘지 참배 및 기념 관람

서울동창산악회(회장 오주영) 정기산행이 5월 10일(매월 2째주 토) 4·19 민주묘지에서 진행됐다.

서울동창산악회는 우리나라 민주 성지를 순례하며 가곡 '선구자' 합창 릴레이를 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백두산 천지, 용정시 일송정과 해란강, 서울 망우역사 문화공원 등을 방문했다.

5월에는 모교 민주화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오는 9월에는 제주도 한라산 산행이 예정되어 있다.



오주영 서울동창산악회장은 “각 성지에서 부른 선구자 영상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끈 대 학으로서 후배들에게 자긍심과 행동하는 지성인의 정신을 전해주고자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무등지구 모임 열려



본회 무등지구(회장 장영태) 모임이 봄비가 내리던 4월 28일 산수동 '남원골 추어탕'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장영태, 이호

근, 김창현, 강훈열, 정호채, 변혁, 손희하, 정현철, 이윤모, 강경민, 양혜령 동문이 참석해 근황을 나누었다.

서울동창인문학트레킹회

능내역, 마재성지, 실학박물관 탐방

본회 서울동창인문학트레킹회(회장 강영남)는 4월 26일 정기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양평에 있는 능내역(폐역)과 천주교 성지인 마재성지와 실학박물관을 함께 방문했다.

특히, 실학박물관 방문 시에는 박석무(법학·62) 다산연구소장을 초청해 '다산의 세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 참석한 동문 회원들은 “다산의 성장기 18년, 영조와 18년, 강진 귀향 제자 양성



18년으로 구분된 그의 500여 권의 저서와 삶을 조명하며 후세 위정자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인문학트레킹회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정기 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교육 총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전남대학교 전·현 교직 동문들의 모임인 '전남대학교 경기도교육 총동문회'(회장 이명선) 정기총회가 4월 26일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동창회 임성주 회장과 위성암 사무총

장이 참석했다.

전남대학교 경기도교육 총동문회는 전·현 교직 동문 2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20년째 경기도 내 동문 교육자들 사이 화합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운무와 아카시아 꽃향기를 만끽한 지리산 둘레17길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2025년 5월 정기산행기

5월 3일 정기산행일(매월 첫 번째 토요일), 우리 산악회원들은 지난달부터 연이어 내리는 봄비를 벗 삼아 지리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우리 산악회(회장 김영필)는 매년 한두 구간씩 지리산 둘레길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작년 봄 다녀온 16길에 이어 17길이다.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에 있는 오미마을부터 광의면에 있는 방광마을까지 12.3km 가량 이어지는 길로, 마을길을 따라 걸으며 구례군의 자연 풍

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출발지인 오미마을에 도착한 회원들은 운조루 근처에서 기념 촬영을 한 후, 용두 갈림길을 향해 출발했다. 화창한 날씨 대신 비오는 날에만 볼 수 있는 운무와 아카시아 꽃향기를 만끽하며 하사마을과 상사마을을 차례로 지났다.

청내골 부근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정자를 찾아 삼삼오오 둘러앉은 회원들은 준비해 온 점심을 나누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거세지는 비바람을 맞으며 황전마을을 지나 지리산 탐방안내소에 도착한 후, 때마침 조영무 부회장이 찬조한 곡자로 지친 몸을 따뜻하게 데우며 이날 산행을 정리했다.



며 황전마을을 지나 지리산 탐방안내소에 도착한 후, 때마침 조영무 부회장이 찬조한 곡자로 지친 몸을 따뜻하게 데우며 이날 산행을 정리했다.

이어 버스를 타고 도착지인 방광마을 내 참새미로 이동한 회원들은 소원바위 앞에서 각자 소원을 빈 후, 기념 촬영을 하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산행의 주제는 철쭉 산행으로 올해 일정은 철쭉 만개 시기와 겹쳤지만, 지리산 둘레길에는 철쭉 군락지가 드물어 아쉽게도 철쭉을 보지는 못했다.

한편, 6월 7일(토요일)에는 명산 기행을 주제로 해남 달마산을 가고, 7월 5일(토요일)에는 다시 명산기행을 주제로 보성 천봉산을 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양궁용 수석부회장 겸 수석총무(010-2533-5243)에게 하면 된다.

글 : 강경민

(전남대총동창산악회 산악대장)

“김선생의 광주사랑” ④1 서창나루의 뱃사공 박호련을 기리는 불망비

글·그림=김길남(지리교육·77) 동문

광주광역시 서구에는 서창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이 있다. 서쪽 창고라는 의미를 가진 서창(西倉)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세곡보관창고가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서창이라는 이름은 서창나루, 지금의 서창대교 이름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서창대교는 서창나루를 오가던 뱃길을 연결하는 다리다. 서창나루 위쪽, 서창대교를 건너기 전에 길가에 눈에 잘 띄지않는 작은 비석 두개가 서 있다. 박호련 시혜불망비(朴浩連施惠不忘碑)다. 두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있다. 아껴 먹고 아껴 써서(節食節用)가난 구제할 도리를 알았네(剩知救貧) 깊은 은혜는 바다와 같고(恩深防海) 높은 덕은 산보다 높다네(德高於山) 을축(乙丑)년(1925년) 2월 서창면 공립(共立), 남의 굶주림을 내 일로 여겨(飢思若己)여기저기 베풀며 가난을 구제했네(傳施恤貧)모든 사람들 입 모아 칭송하니(萬口咸誦)남기신 덕이 날로 새로워라(遺德日新) 기사(己巳)년(1929년) 11월 서창면 일동. 이같은 비석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박호련의 구체적인 선행은 베일에 싸여있었다. 다행히 중의일보(1930년 1월 22일)에 선한 뱃사공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그는 구한말 광주 서창면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빚만 남기고 떠났다. 서창나루에서 뱃사공 일을 시작했다. 그는 차곡차곡 돈을 모아 빚을 정리했고, 뒤에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형편이 나아진 호련은 이웃 주민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섰다. 1925년에는 돈과 쌀과 재산을 풀어 많은 이재민들을 건져냈다. 1929년에는 극심한 한해(旱害)가 들었다. 박호련은 다시 한 번 구휼에 나섰다. 곡식과 재산을 풀어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려냈다. 영산강은 넓은 들을 적시고 박호련의 마음은 우리들의 가슴을 적신다.

세계로병원
SEGYERO HOSPITAL

무릎·허리·어깨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수술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

진료 내용 양방향 척추내시경 | 로봇인공관절수술
척추 | 관절 | 뇌신경 | 복강경 | 소화기 | 건강검진

세계로병원
Segyero Hospital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77 (수완지구 롯데마트 건너편)
Tel : 062)450-5000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37대 회장단 출범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윤 식 호 (행정학과 93졸업)

I 김현진(미술·90) 부회장

‘자연의 숨결을 따라 마음의 선을 그리다’ 개인전 열려

광주 남구 양림미술관...자연의 생동감 담은 회화 50여점

자연과 교감하는 화가 김현진(미술·90) 본회 부회장의 여덟 번째 개인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제8회 김현진 개인전 ‘자연의 숨결을 따라 마음의 선을 그리다’ 전시가 5월 11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생동감을 화폭으로 담아낸 회화 5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현장은 햇살에 반짝이는 윤슬의 속삭임과 바람이 스치는 나뭇잎의 떨림이 담긴 그림으로 가득하다. 관객들은 마

치 빗줄기 사이로 자연이 끊임 없이 말을 거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김현진 작가는 자연이 지나간 자리마다 피어난 감정의 흔적을 화폭에 남기는 작업을 이어왔다. 찰나의 자연 속에서 길러진 정서적 울림이 회화에 고

스란히 담겨 있다. 김현진 동문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감정의 색으로 남긴 결과물들을 선보인다. 작품들을 감상한 관객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문기고

집단지성 vs 집단착각

상생협력은 21세기의 중요한 경쟁전략이자 경영전략 통합과 협력의 마인드로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최원락 (경제·67) 동문
KIVA 외교위원장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의 양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방대하고 빠르다. 아무리 천재라도 한 사람이 모든 것에 통달하기가 쉽지 않다. 지도자나 경영자에게 시스템 장치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직관력, 통찰력, 그리고 종합하는 마음(synthesizing mind)에 대한 소양이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나보다 강하다’로 상징되는 집단지성은 경영사상이자 혁신의 대가로 알려진 리드비터(Charles Leadbeater)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집단지성은 목표의 공유,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지식이나 정보의 조합과 연결 등이 원활할 때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 그리고 도덕성과 신뢰성은 기본이다.

‘생각의 법칙’ 저자인 맥스웰(John Maxwell)도 여러 사람의 사고가 혼자만의 사고보다 혁신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리스크관리가 용이해지고 다양한 선택지가 도출될 수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구글의 탄생 배경에는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 직원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인텔의 도약 배경에는 인텔 이스라엘 연구소의 트러 운전사의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것은 유명하다. 때론 비전문가의 아이디어가 크나큰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로위키(James Surowiecki)는 집단지성이라는 말 대신에 대중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소수의 엘리트층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많은 수의 대중들이 더 똑똑해서 현명한 의사결정, 문제해결, 혁신 그리고 미래 예측에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중의 지혜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계층이나 사고의 소유자여

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하고 종합하는 역량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나 콜라보노믹스(collabonomics) 등이 집단지성의 장점을 활용하는 시스템들이나 이론이다.

집단지성에 반하는 집단사고나 집단착각이라는 현상이 있다. 집단사고란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 좋은 결정을 도출하기 보다는 한 방향으로 쉽게 의견이 모이는 현상을 말한다. 집단사고는 사회심리학자 재니스(Irving Janis)가 그의 저서 ‘집단사고에 의한 희생들(Victims of Group Thinking)’에서 강조한 개념이기도 하다.

집단사고보다 더 피해야 할 사고의 유형이 집단착각(collective illusion)이다. 하버드대학교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로즈(Todd Rose)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괜찮다는 착각이 들거나, 모두가 그렇다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언행을 조율하고 싶은 충동 즉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순

응편향(conformity bias)에 갇히기 쉬운 현상을 말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 함정에 갇히게 되면 국민 간의 갈등은 커지고 갈등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른다. 한국의 갈등 수준은 OECD국가 중에서 항상 상위권에 올라 있고 2010년대 초 한국의 모 경제연구소는 1년에 들어가는 갈등비용은 최소 우리나라 국방예산을 넘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갈등관리비용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많은 경영자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은 집단지성의 장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만들지 않고 집단사고나 집단착각의 함정에 갇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념대립, 지역갈등, 진영논리의 함정 때문에 집단사고나 집단착각의 함정은 깊어지고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약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부분들의 최선을 합하면 전체의 최선이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의 최악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과 국가 간의 균형감이 훌륭한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장점이 훼손될 수 있어 걱정이다.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고경영자는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전략과 경영철학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산업사회에서는 일과 사람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지만 지금의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조직과 조직, 사람과 기계의 관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가치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2000년대 초에 브라질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기준으로 신뢰성(Trust), 도덕성(Integrity), 단결성(Solidarity), 개방성(Openness)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여당과 야당이, 보수와 진보가, 고용주와 노동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양성을 가지고 개방적인 태도로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단결성을 발휘하면서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기심이 아닌 통합의 마인드, 경쟁이 아닌 협력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상생의 틀을 만드는 것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상생협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21세기의 중요한 경쟁전략 나아가서는 경영전략이 되고 있다. 회사도 그렇고 국가는 더욱 그렇다.



동문기고

가슴 속에 핀 오월의 꽃!!

“오월 정신, 45년의 기억을 넘어 미래로!”



오미란 (일어일문학·82) 동문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회장

다시 오월입니다.
세월이 흘러 희미해질 만도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여전히
우리의 5월은 도처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45
번째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
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쿠
테타에 이어 법원의 사법 쿠테
타까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실은 도처에 복병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맞는 오
월은 더 의미가 깊습니다.

1980년 5월 불의에 맞서 정
의를 외치고, 독재에 맞서 민주
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섰던 전남대 교수들과 학생
들, 광주시민들의 용기 있는 투
쟁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자

산이었음을 온국민이 뼈저리
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침내 광주는 빛이 되었고, 민
주주의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12·3 투쟁부터 오늘 이순간까
지 우리 전남대 공동체는 위기
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
해 한몸으로 투쟁했습니다. 다
시 만난 오월은 선배 전남대인
들의 숭고한 투쟁이 우리 동문
들의 가슴속에 함께 숨 쉬고 있
음을 확인합니다.

민주, 인권, 평화, 연대라는
5·18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나
아갈 방향입니다. 전남대 용봉

인들은 앞으로도 선배들의 숭
고한 뜻을 가슴에 담고 후배들
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지
원하는 연대의 동아줄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오월의 꽃’은 광주를 넘
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가
슴에 피었습니다.

광주는, 전남대는, 우리는 위
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
의를 지키는 꽃으로 피어났습
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
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임직원들과 졸업생 동문까지

함께하는 전남대라는 공동체는
정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실
현하는 시대가 부여한 빛나는
과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5·18민중항쟁은 대한민국 민
주주의의 역사이자 오늘을 가
능하게 한 뜨거운 외침입니다.
우리 모두 5·18의 후예로서 자
부심을 가지고 동문으로서, 시
민으로서, 그리고 후대에게 부
끄럽지 않은 선배로서 함께 나
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김경천(철학·66, 전 국회의원) 고문

‘유태규 목사·김경천 장로 부부’ 백년해로 대상 수상



김 경 천 (철학·66, 전 국회의원) 동문과 부군 유태규 목사가 ‘2025 세계 부부의날 31주년 및 국가기념일 제정 18주년 기념’ 백년해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5월 21일(수) 오전

11시에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 더 창원호텔에서 진행된다.
김경천 동문은 ‘제2호 경천애인관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정의·평화·생명’을 주제로 감사예배 및 사랑나눔잔치를 5월 2일 11시에 금남로 센텀시티 202호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말씀 이종석 목사(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대표기도에 변지유 장로

(무돌교회-기장), 성경봉독 홍인화(예원교회-예장), 축도 유태규 원로목사, 축가에 강양은 명예교수(호남신학대학교), 축사 김연미 원장(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 노은미 회장(광주YWCA 직전), 신수정 의장(광주시의회)이 참여한다.
또 빛고을광주 각계 여성계 대표 40여 명 참석할 예정이다.

박종화(신문방송·82) 동문

서예 전시 열고 시집 ‘치밀한 빈틈’ 발간도

민중가수 박종화(신문방송·82) 동문이 갤러리생각상사에서 ‘자유 그리고 사유’를 주제로 박종화 서예 전시를 연다. 오월초대전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박종화 동문은 20대부터 민중시위 현장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노래를 만들고 부르며 아스팔트 위에 있었다. 그리고 투쟁현장과 싸움터에서 성정이 거칠어진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붓을 들었다.

‘노래할 때 나는 자유’라는 작품은 역동적이며 무한한 자유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글씨에서 응축된 삶에 대한 의지와 사유의 깊이가 배어나온다. ‘영원하라 광주여’는 지난 12·3 비상계엄과 맞물려 울림을 준다. 광주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어떤 억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광주정신이 배면에 드리워져 있다.

전시와 아울러 박종화 동문이 23년만에 시집 ‘치밀한 빈



영원하라 오월 광주여 서예

틈’(문학들刊)을 펴냈다. ‘치밀한 빈틈’은 우리 시대의 위선과 거짓에 대한 고발이자 반성의 시집이다.

김해화 시인은 “나는 박종화의 분노에 동의한다. 슬픔에 동의한다. 사랑에 동의한다”고 평했다. 관념이 아닌 현실을, 위선 아닌 진실을 직시하는 시인의 선언에서, 진심을 담아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웃들의 초상을 떠올리게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은(정치외교·99) 동문

법무법인 ‘인의로’ 지점 서울, 경기 등으로 확장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국민을 위한 따뜻한 법률 서비스를 실천해 온 김경은 변호사가 법무법인 ‘인의로’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 변호사는 광주 지산동에 주사무소를, 서울 서초 사무소와 경기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마련하며 광역 거점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법인 인의 설립에는 김경은 대표변호사 외에도 각 지역별 유능한 법조인이 함께 한다. 서울 서초 사무소에는 이종걸 고문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가 활동하며, 수원 사무소에는 안소현 변호사가 포진했다. 광주 본사무소에는 정경세 변호사, 황충만 변호사가 함께

하며, 봉성동 사무소도 김해암 변호사의 참여로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이다.
김경은 대표 변호사는 “그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광주 지역을 거점으로 법률사무소 ‘인의’를 운영해 왔다”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무법인 인의로를 설립하며 수도권과 경기도에 새 지점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취임·승진·수상·출판 등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계재를 희망하는 동문은 관련자료(사진포함)를 보내주세요.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유병용(농업경제·88) 동문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 취임



유병용(농업경제·88) 동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17대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5월 7일 취임했다. 유병용 동문은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6년 LH에 입사해 다양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본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인천본부 주거복지처장을 거쳐,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특히 신축매입약정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을 진두지휘했다. 유병용 본부장은 “고향인 광주전남지역에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돼 설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과 주택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그리고 청렴 공정, 현장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김재필(동물자원학부·82) 동문

22대 광주축협 조합장 선출



김재필(동물자원학부·82, 광주축협 상임이사) 동문이 4월 22일 열린 광주축협 재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20일까지며 향후 2년간 광주축산농협의 재정운영, 조합원 복지, 스마트축산 트렌드화, 축산물 유통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 등 주요 경영현안을 책임지는 리더가 된다. 김재필 동문은 광주축산농협 상임이사,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겸임교수를 지냈다.

■ 구종천(행정·81) 동문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 취임



구종천(행정·81, 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 동문이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3월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 구 대표이사를 선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구종천 동문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호남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광주시 대변인, 동구 부구청장,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을 역임하며 문화예술과 축제 현장을 두루 거친 문화관광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이삼용(의학·76) 동문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이삼용(의학·76, 광주보훈병원장) 동문이 ‘대한병원협회 제66차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삼용 동문은 지난 2022년 9월 취임 이후 인력난과 진료 공백이라는 위기 속에서 전문의 충원, 성과 중심의 운영제도 도입, 진료 활성화 전략 추진 등 병원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운영수지 흑자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삼용 동문은 전남대학교병원 중앙수술실장, QI실장, 병원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였으며, 대한성형외과학회 광주·전남지회장, 대한성형외과 호영남지역학회 이사장 및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성형외과의사들의 학술의 장을 마련을 통해 지역 성형외과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 안영근(의학·83) 동문

일본심장학회서 심장 오가노이드 및 동맥경화 치료 연구 성과 발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의학·83) 동문 연구팀이 최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025년 일본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심장 오가노이드 및 동맥경화 치료 관련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심장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실험실에서 배양한 미니 심장 조직으로, 재생의학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이다. 이 기술은 환자 맞춤형 심장 질환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스크리닝에 활용될 수 있어, 미래 심장 치료의 혁신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 문선화(국악·95) 동문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문선화(국악·95, 광주 동구의회 의장) 동문이 ‘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공동체 역량 증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주관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 전파, 확산하며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 정치인을 지원·육성하는 데 의미를 두는 상이다. 문선화 동문은 관내 원도심에 집중 분포된 쪽방촌 거주민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각종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조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쪽방촌 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그랑알파컨설팅
스타트업·벤처 전문컨설팅

前) 한양대학교 IAB 자문교수
前) 서울테크노파크 ICT 위원
前) 라이프엔비이오 공동창업자 / PE 매각

대표이사 김기현
(지구시스템공학과 06入)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8
T. 070-4046-9230 | E. kingnation@naver.com

이승철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 **이승철** (의학과 84후)

건강한 피부를 위한
피부질환 치료전문클리닉

건선, 백반증, 피부암, 아토피피부염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57(남동) 헬렌리너 3층
TEL. 062.371.8575
FAX. 062.371.8574

대중교통 이용안내

지하철 : 남광주역 3, 4번 출구, 전남대병원 오거리 역앞
버 스 : 전남대병원 오거리 정류장
12, 37, 46, 48, 51, 54, 58, 95, 152, 228번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직과 신뢰의 전문메이커

(株) 先 暻
글로벌(주)/(주)AK TECH

대표이사 **김종일** (공업화학과 92후)

쇼케이스 / 조명물
주방기구 / 냉동설비
가스렌지 / 산업플랜트

본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남길 15
제1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25-28
제2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10번로 37
Tel : 062-956-7255, 7257
Fax : 062-956-7256
E-mail : sk6291@hanmail.net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박구용(법학·98) 동문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고문변호사 위촉



박구용(법학·98, 법무법인 양우 변호사) 동문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박구용 동문은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 보탬이 되는 법률 자문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구용 동문은 진흥고,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시 법률고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윤리위원,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특히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법률고문을 맡는 등 여성과 장애인 인권 전문가로 평가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박구용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 관련 법률 지원을 비롯한 장애인 선수들의 생활민원까지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화순전남대병원

소아 환자에 어린이날 선물 전달



화순전남대병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환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고 4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선물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광주나눔소아암센터와 재단법인 유미회에서 각각 기증한 캐릭터 카메라 15개, 무선 선풍기 60개다. 재단법인 유미회가 기증한 무선 선풍기는 다음 달 10일 광주 패밀리랜드에서 펼쳐지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환아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광주나눔소아암센터는 해마다 어린이날과 명절에 환아와 보호자들을 위해 선물을 전해 주고 있다.

■ 조새미(법학·03) 동문

전남장애인체육회 동행변호사 위촉



조새미(법학·03, 법무법인 영산 변호사) 동문이 전남장애인체육회 동행변호사로 위촉됐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4월 24일 전남도체육회관 내 회의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반부패 신고 시스템 강화를 위한 ‘동행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새미 동문은 목포여자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부패방지 및 노무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전남 지역 법률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최유리(의학·00) 동문

‘전남도지사 표창’ 수상



최유리(의학·00,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동문이 제53회 보건의 날을 맞아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최유리 동문은 광주전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장을 맡으며 암 생존자와 가족의 건강 증진 및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박성휘(미술) 동문

‘The Women Story’ 개인전



박성휘(미술) 동문이 자미갤러리에서 ‘The Women Story’ 전시를 4월 18일까지 열었다. 박성휘 동문의 작품 속 여성들은 한국의 정서를 담고 있지만 능동적이다. 간소화된 한복을 입은 신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총동창회 주요 행사 일정

- 06.05.(목) 개교기념식(모교)
- 10.18.(토) 총동창회장배골프대회(무안CC)
- 11.01.(토) 용봉인친선등산대회(충청)

류혜경 총동창회장 주요 동정



-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21주년 기념식 (4/24)
- 용봉언론인 간담회 (4/24)
- 전남대병원 간담회 (4/28)
- 제4회 전국무등산무릎길완주대회 개최식 (5/10)
- 5·18기념행사(릴레이 헌혈나눔) (5/14)
- 5·18 묘역참배 및 기념식 (5/16)
- 5·18/민주평화대행진 (5/17)
- 의대동창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5/17)
- 5·18 모교 동문방문 행사 (5/18)

全南大學校同窓會報



- 발행인 : 류 혜 경
- 편집인 : 김 영 필
- 발행처 :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중흥동)
- 광고문의 : 062) 528-9950
- 062) 528-9946
- 홈페이지 : <http://home.jnu.ac.kr>
- E-mail : cnud@hanmail.net

KICPA
송경식공인회계사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송 경 식 (회계 89주)
 전남 순천시 연항변영6길 4(연항동, 순천세무서 앞)
 H.P : 010-3628-7331
 E-mail : sks3831@hanmail.net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www.sarang-hosp.co.kr
고객을 가족같이 내 집처럼 편안한 병원
송정사랑병원
 SongjungSarangHospital
 전남 순천시 연항변영6길 4(연항동, 순천세무서 앞)
 H.P : 010-3628-7331
 E-mail : sks3831@hanmail.net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비봉기업주식회사
 BIBONG CORPORATION
 대표이사 최 봉 호 (3기 산업대학원)
기계설비 / 소방설비 / 상하수도설비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32번길 48
 전남 목포시 상동로 66, 상가동 210호(상동)
 TEL : 062-527-6601 / FAX : 062-527-670
 E-mail : bhchoi24@hanmail.net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용봉인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동창회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조 성 희 배상

▷ 임원회비 ◁

회 장 : 3,000만원 이상	고 문 : 3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 : 300~500만원 이상	감 사 : 200만원 이상	상 임 이 사 : 30만원 이상
이 사 장 : 1,500만원 이상	자문 위원 : 30만원 이상	부 이사장 : 200만원 이상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이 사 : 2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3-127-004515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일반회원회비 ◁

일반회비 : 3만원 이상	평생회비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08738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	---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명단이 누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 E-mail : cnud@hanmail.net

동창회비 납입 동문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3월 분

임원회비 (1월 1일~3월 31일)

회 장	
▲류해경(의학·76)	3,000만원
상임고문	
▲이기홍(법학·53)	30만원
▲최상준(건축공학석사·58)	30만원
▲허 정(의학·70)	50만원
고 문	
▲구승룡(의학·72)	100만원
▲김세자(간호·71)	30만원
▲배지수(요업공학·68)	5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오재규(화학공학박사·72)	50만원
▲임청택(경영·61)	30만원
▲주경석(법학·58)	30만원
자문위원	
▲김만웅(최고경영자·5기)	30만원
▲김재화(경관·98)	3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30만원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민형배(사회·79)	30만원
▲윤현두(자원공학·70)	30만원
수석상임부회장	
▲최희동(원예·74)	200만원
상임부회장	
▲서영숙(가정관리·85)	300만원
▲정민호(경제·85)	300만원
▲임미선(국사교육·89)	300만원
▲김종선(의학·92)	300만원
▲정혁준(행정·93)	300만원
▲고병운(건축공학석사·17)	300만원
▲이지현(경제·08)	200만원
간호대회장	
▲박숙령(간호·74)	50만원
인문대회장	
▲손희하(국어국문·75)	50만원
부회장	
▲김남균(원예·82)	50만원
▲김명균(사학·85)	50만원

▲김제승(자원공학·72)	50만원	▲강부암(회계·90)	50만원
▲김종춘(무역·78)	50만원	▲김선윤(경영·83)	50만원
▲김현중(정치외교·90)	50만원	▲김영곤(경영·87)	20만원
▲노재형(미생물·92)	20만원	▲김영철(경영·75)	30만원
▲노진양(산업공학석사·93)	30만원	▲김윤곤(회계·82)	30만원
▲문기식(행정·79)	30만원	▲김태수(경영·80)	50만원
▲박명숙(국어국문·98)	50만원	▲윤명호(무역·67)	30만원
▲박용수(과학교육·75)	30만원	▲이문규(무역·87)	50만원
▲오병석(의학·91)	50만원	▲이승국(행정·90)	50만원
▲오수진(법학·1)	50만원	▲정선호(무역·77)	50만원
▲이상식(회계·81)	50만원	▲한동철(무역·75)	50만원
▲이연풍(경관·14기)	50만원	▲한성수(회계·82)	
▲임현정(전산·94)	50만원		
▲임현정(컴퓨터정보·94)	50만원		
▲정순근(행관·23기)	20만원		
▲정해정(낙농·85)	50만원		
▲조봉근(정책·92)	50만원		
▲최춘태(농학·81)	15만원		
▲홍종희(기계공학·70)	50만원		
상임이사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서상우(정치외교·80)	20만원		
▲최고산(21세기 최고지도자·30기)	30만원		
▲최충명(정치외교·98)	30만원		

평생회비 (1월 1일~3월 31일)

▲박은영(사회복지협동·11)	50만원
▲하주아(생활환경복지·13)	50만원

연회비 (1월 1일~3월 31일)

간호대학	
▲김혜영(간호·91)	
▲남상옥(간호·68)	
▲서향재(간호·67졸)	
▲이종임(간호·82)	
▲최영재(간호·73졸)	
경영대학	

공과대학	
▲강대욱(토목공학·58)	
▲김관현(토목공학·61)	
▲김선식(화학공학·69)	
▲김영남(전기공학·70)	
▲김영무(전기공학·61)	
▲김용백(건축공학·68)	
▲김인구(토목공학·80)	
▲김종근(건축공학·72)	
▲김진하(화학공학·69)	
▲김현호(금속공학·68)	
▲김형주(화학공학·80)	
▲박순식(토목공학·83)	
▲백부선(화학공학·55)	
▲서금렬(공업화학·85)	
▲손동일(건축공학·83)	
▲염종환(기계공학·78)	
▲오상용(화학공학·69)	
▲오일환(전기공학·76)	
▲윤대재(전기공학·72)	
▲윤재화(토목공학·58)	
▲이병길(화학공학·58)	
▲이재동(토목공학·71)	
▲이한묵(토목공학·58)	
▲이현균(기계공학·79)	
▲이형섭(금속공학·76)	
▲장상옥(전기공학·72)	

- ▲정유홍(기계공학·74)
- ▲정한수(건축공학·70)
- ▲정호채(기계공학·79)
- ▲차승건(토목공학·72)
- ▲천양기(건축공학·70)
- ▲최문길(전기공학·70)
- ▲최연수(금속공학·81)

농업생명과학대학

- ▲기갑서(농업경제·68)
- ▲김규상(임학·62)
- ▲김성근(임학·62)
- ▲박금중(농학·73)
- ▲서영권(농학·69)
- ▲심재윤(농학·71)
- ▲이덕범(임학·77)
- ▲이영승(농화학·83)
- ▲이정옥(임학·69)
- ▲조홍근(농학·69)
- ▲최근영(국제·07)

문화사회과학대학

- ▲최안성(축산·82)

법과대학

- ▲강한주(공법·86)
- ▲강현섭(법학·72)
- ▲김성흠(사법·91)
- ▲김철영(법학·57)
- ▲박광호(행정·92)
- ▲박병철(법학·75)
- ▲유영성(법학·79)
- ▲이두백(법학·69)
- ▲임성환(법학·74)
- ▲황의봉(법학·58)
- ▲최태화(법학·58)

사범대학

- ▲박종근(불어교육·78)
- ▲정경모(영어교육·87)
- ▲윤준서(생물교육·84)
- ▲이승오(국어교육·81)
- ▲장길수(생물교육·82)

사회과학대학

- ▲김양순(심리·87)
- ▲박하일(정치외교·54)
- ▲선국규(사회·79)
- ▲이남기(정치외교·84)
- ▲이은석(문헌정보·84)
- ▲한성수(정치외교·72)

수의과대학

- ▲고태오(수의학·80)
- ▲문무광(수의학·61)
- ▲백병선(수의학·72)
- ▲성광일(수의학·53)
- ▲안익순(수의·69)
- ▲유동현(수의·56)

의과대학

- ▲김중성(의학·77)
- ▲박찬연(의학·85)
- ▲박형보(의학·55)
- ▲안현영(의학·76)
- ▲이기운(의학·79)
- ▲이유근(의학·61)

인문대학

- ▲강상욱(사학·88)
- ▲강성률(철학·79)
- ▲고지문(영어영문·59)
- ▲김양현(철학·80)
- ▲박창준(중어중문·84)

- ▲지경래(국어국문·58)
- ▲황순영(영어영문·76)

자연과학대학

- ▲김애리(계산통계·82)

치과대학

- ▲최준규(치의학·87)

교육대학원

- ▲윤희숙(교육석사·04)
- ▲조명옥(여성지도자과정·1기)

경영전문대학원

- ▲고병선(경관·29기)
- ▲김석기(경관·38기)
- ▲백영팔(경관·38기)
- ▲임종학(경영석사·34기)
- ▲정광영(경관·27기)
- ▲허상배(경관·36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이일순(체육·16)
- ▲채복경(간호·05)
- ▲임근천(체육·18)

산업대학원

- ▲김진선(산관·10기)
- ▲민창식(산업공학·15)

정책대학원

- ▲오승준(행정·91)
- ▲윤인후(행정석사·92)
- ▲이길선(행관·25기)
- ▲전주언(행정·92)
- ▲정현철(행정석사·85)

단과대학불분명

- ▲김종민
- ▲무기명(00·00)

2025년 4월 분

임원회비 (4월 1일~4월 30일)

상임고문	
정인채(토목공학·65)	30만원
고문	
라석찬(의학·57)	50만원
자문위원	
공병철(정관·26기)	10만원
김성대(원예·73)	30만원
오광인(임학·65)	30만원
정기명(법학·81)	30만원
최정원(농업경제·70)	30만원
상임부회장	
김성민(무역·87)	300만원
오경미(상업교육·82)	300만원
부이사장	
박인철(행정·90)	50만원
의과대학동창회장	
서해현(의학·75)	50만원
부회장	
강훈열(사법·86)	50만원
고병일(경제·84)	50만원
김현진(미술·90)	30만원
문인(토목박사·96)	57만원
서애련(사법·92)	50만원
양주열(행정·82)	50만원
상임이사	
이영주(약학·94)	30만원
이사	

전미희(식물생명공학·9)	20만원
상임이사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최충명(정치외교·98)	30만원

평생회비 (4월 1일~4월 30일)

마영완(화학·83졸)	50만원
-------------	------

연회비 (4월 1일~4월 30일)

간호대학	
김혜영(간호·91)	
문정선(간호·74)	
안정옥(간호·77)	
경영대학	
민화식(경제·58)	
박병춘(경영·80)	
최성주(경제·80)	
공과대학	
강진하(금속공학·72)	
김부용(화학공학·71)	
김용재(금속공학·70)	
박동주(전기공학·61)	
이한민(토목·87)	
장희(화학공학·77)	
지영섭(금속·64)	
농업생명과학대학	

임행진(임학·52)	
임형기(농업경제·67)	
최안성(축산·82)	
법학대학	
강훈열(사법·86)	
임정택(법학·63)	
사회과학대학	
김형국(정치외교·72)	
약학대학	
김영란(약학·86)	
의과대학	
최정섭(의학·79)	
인문대학	
김재봉(국어국문·70)	
정책대학원	
신승수(행정석사·2)	
최원섭(행정·4)	

<대학원 약칭 범례>

- 경관 :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 경최 :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정관 : 정책대학원
- 정석 :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 정최 : 정책대학원 최고정책과정
- 산관 : 산업대학원
- ※ '행정대학원'이 '정책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경영대학원'이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이오 메가플랜트

*청정 수소생산·유통 활용

*배터리 핵심 4대 소재

*전기차 충전 플랫폼

새로운 변화가 모여 이로운 미래로

롯데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더 이롭고 든든한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롯데